

화랑도 교육이념과 수련활동에 관한 재조명

최 현*

- I. 서론
- II. 화랑도의 가원 및 사상적 배경
- III. 화랑도의 교육이념과 목적
- IV. 화랑도의 수련활동
- V. 결론

I. 서론

한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신라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대륙과의 접촉을 통한 국가의 제도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고구려나 백제보다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은 신라로 하여금 독자적인 주체문화를 창조 유지할 수 있는 자주성의 확립을 실현해 주었으며 외래문화의 유입이 있을 때에도 이를 기존문화에 접목시켜 유용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백을 제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강국을 이루어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청소년교육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화랑도의 교육이념에 대한 재조명은 오늘날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청소년교육 전문가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는 교육교류를 통한 남북한 협력강화 방안으로 비무장지대에 '남북한 학생 공동생활 문화센터' '평화대학' 설치 그리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한 학교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교과서'와 '우리말 사전' 편찬을 건의하였다. 또한 내용중에는 정보자료 교환 및 교원상호 교류등을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육추진위원회' 설립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지구상에 남아있는 단하나 민족분단 국가인 한국은 20세기를 마감하기 전에 기필코 통일을 이루어야 도겠지만 이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도 안되겠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신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위원

1990년 11월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를 보면 사반세기 이상 정부차원의 통일노력이 있었고 특히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연구는 2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막상 통일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청소년비행이 10배 이상이나 폭증하고 미래의 통일을 완성할 주역인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급변으로 인한 정서불안현상 등 예기치않던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독일의 국가적 상황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않다고 보겠다.

최근의 북한관계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의 청소년들은 발랄함과 순수함,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 패기와 희망으로 상징되는 청소년문화의 특성대신 획일과 통제, 규율과 억압, 사상과 투쟁의 틀에 갇혀 전세계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양상과는 동떨어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으며 10~30세로 구성된 사노청에서 주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는 강·절도, 성폭행 등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일보, 1991. 11. 15). 이러한 북한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는 통일한국의 문제로 곧 대두될 것이므로 심도있고 철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선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음은 당행한 일이며 그 당시 청소년 교육의 성공은 높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화랑도 교육이념과 수련활동에 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을 기초로 하여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이는 이상적인 청소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래사회

의 주인이 될 한국의 청소년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바르고 협동할 줄 알며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갖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줄 아는 밝고 씩씩한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6월에 확정발표된 체육청소년부와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청소년 기본계획이 덕성합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때 화랑도 연구는 현실에의 적용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화랑도의 기원 및 사상적 배경

1. 화랑도의 기원

화랑도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한국 고대사의 기본자료인 김부식의 삼국사기(고려인종 23년, 1145)와 일연의 삼국유사(고려 충열왕 때, 1274~1308)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본문에서는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을유문화사, 1957), 화랑도(이선근, 1982), 한국철학사(한국철학회, 1990), 한국사신론(이기백, 1991) 및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리에 이를 수 있었다.

고대 한국의 민속과 종교사상은 샤머니즘이라 부르는 넓은 의미의 무속신앙에 근거한 원시종교 형태로 시작하여 하늘에 경배드리고 조상을 섬기는 생활신앙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특히, 추수가 끝난 10월이면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밤 낮으로 먹고 마시며 춤과 노래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제례는 부여에서는 영고, 고구려에서는 동맹, 예에서는 두천이라 불렀는데 부족전체의 공동

축제였다. 축제 기간중에는 다양한 과정활동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중에는 춤추고 노래부르기, 힘겨루기, 칼쓰기, 창던지기, 말타기, 달리기, 병정놀이 등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개인별 시합이나 고을간의 경주를 할 때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을 것이고 선수로 참가한 자는 승패에 따라 개인의 명예는 물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도 연계시켜 필승을 다짐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랑도의 기원은 신라 뿐만 아니라 고대의 한반도 전체 즉 고구려나 백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던 고을을 중심한 청소년들의 집단 놀이활동이나, 병사활동, 종교활동, 명절놀이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며 민간인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조의선인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고구려에서는 국가교육기관인 태학(소수림왕 2년, 서기 372년) 외에 사립교육기관인 경당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을 보면 독서와 군사훈련으로 활쏘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백제에서는 박사제도도 있었으며 중앙에는 교육행정기구가 존재했음으로 보아 역사자료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 인접국가들과의 관계로 보아 학문과 무예를 청소년들에게 주요과목으로 훈육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김기태, 1983).

특히 신라에서 화랑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발전하여 꽃을 피우게 된 이유는 박, 석, 김씨의 중앙정부 통치와 같이 씨족제도가 계속되어 내려옴으로 조상은 물론 어른에 대한 예절이 강조되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 주며 힘든 일은 함께하는 협동이 생활화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집안의 뿌리의식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합하여 대단한 긍지를 가진 국민의 집합체가 될 수 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적 존재는 협사리 넘길 수 없는 상태이었을 뿐아니라 패하면 바다로 후퇴해야 하는 데 왜구의 침입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적 자극은 이들에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정신적인 무장을 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고을을 지키고 국가를 보호한다는 큰 뜻을 높이사게 되므로 민간차원의 청소년 운동이 활성화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화랑출신의 유능한 장군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진흥왕 23년 서기 562년 화랑 사다함이 대가야 정벌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는 등 많은 업적을 세우게 되자 동왕 37년 서기 576년에는 왕명으로 화랑도를 국가 청소년단체로 승인 국가기구에 편입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화랑도의 사상과 교육이념은 국민정신의 승고한 사상적 기초로 정착하면서 국가 융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고 화랑도는 국가의 청소년 전전육성정책의 주대상으로 부상되었다.

화랑도의 기원에 대한 학설로는 원시 청소년 집회에서 연유하였다는 설과 소도제단의 무사들이 화랑도화하였다는 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사상적 배경

화랑도의 사상적 배경은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종교가 문화의 창조력은 물론 역사의 진행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초월적인 힘에 의존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려는 태도나 행동양식으로 나타나지만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정신 형성의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 권제4 진흥왕 37년의 내용중 최치원의 난랑비문서 부분에는 화랑도에 대한 사상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깊은 사상을 가진 훌륭한 도가 있는데 이를 풍류라 이른다. 그 교는 유교, 선교, 불교의 삼교를 포함하여 백성을 가르친다. 그리하여 그들의 집에 들어오면 어른에게 효도하고 집에 나가면 나라에 충성을 다하니 이는 공자의 가르침이요, 모든 일을 거리낌 없이 처리하면서 말은 얇고 일을 실행에 옮기니 이는 노자의 가르침이며, 악한 일은 행하지 않고 착한 일 만을 실천하는 이는 석가의 가르침 대로다.”

이와같은 사상적 배경을 기초로 화랑도는 창설로부터 삼국통일이 완성된 문무왕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 불교와 잘 융화되면서 발전하여 무사도 정신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특히 원광법사가 귀산과 취항 두 화랑에게 가르쳐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친구간에는 신의를 지키고, 전쟁터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말며, 생명체를 죽일 때는 가려서하라는 세속오계는 윗사람과 아랫사람뿐 아니라 수평적 관계까지 언급해 줌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완전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큰 뜻을 행함을 죽음보다 더 소중한 일깨워 줌으로 의로운 삶에 가치를 부여해 주었다.

이는 청소년기의 화랑들에게 소아가 아닌 대아의 깨달음을 주게 되었고 삶을 통한 실천으로 이어져 생활화됨으로 국가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축적됨에 유사시에는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힘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미물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자비주의 사상은 인간자신의 존재 자체에 존귀한 의미를 부여해 줌은 물론 인도

주의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고결한 성품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씨족제도, 골품제도와 같은 엄격한 계급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인도주의 사상이나 평등사상이 공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 이러니와 현재의 민주주의 기본이념인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인식과 자유평등사상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중심교육은 서양의 그것보다 신라에서 먼저 그 중요성을 깨달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Ⅲ. 화랑도의 교육이념과 목적

교육의 이념과 목표는 대상에 따라 알맞게 세워져야 한다. 여기에서 교육의 대상인 화랑도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주로 15~18세 전후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랑 응령이 18세 총단장인 국선이 되었고, 사다함이 15-16세에 종군하여 17세에 전사하였으며, 관창이 16세에 전장에서 백제의 계백장군앞에 서게 되었고, 김유신도 15세에 화랑이 되어 18세에 국선에 오르게 되었다는 삼국사기의 내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인 화랑도의 교육목표는 국가 청소년 조직으로서 유사시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있었으며, 오계삼미의 교육이념에 따른 철저한 정신교육과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선근(1982)은 이를,

첫째는 씩씩한 중견청소년을 조직하고 훈련하여 언제나 국토방위와 국위선양에 총동원하는 것,

둘째는 국토통일 상무적인 기풍을 향시 진작하여 사기를 앙양하는 동시 민족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는 일,

셋째는 조국앞에서는 개인의 이득을 용인치 않고 조직과 규율을 통하여 언제나 대아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하였던 것이라고 기술해 주고 있다.

또한 삼미의 정신은 삼국유사 제48대 경문왕에 기록된 국선 응벌과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행실로, 남의 옷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면서도 겸손하여 남의 밑에 있는 사람, 세력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옷차림이 검소하게 하는 사람, 본래부터 귀하고 세력이 있으면서도 그 위력을 부리지 않는 사람의 인격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널리 유익하고 이롭게 하며, 교육의 목표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전인적 성장에 두고, 미래의 한국을 책임지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인재양성에 있음을 볼 때 양쪽 다 덕성함양을 중심사상으로 인격도야에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랑도교육의 중심사상에는 국가에 대한 애국애족정신, 사회생활에 필요한 믿음과 협동심, 친구들간의 서로돕는 정신,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신, 겸손하며, 검소하고, 관용을 할 수 있는 윤리적 측면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삼국사기 진흥왕 37년에 소개된 김대문의 화랑세기 일부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 현명한 재상과 훌륭한 장군 용감한 병사들이 화랑출신중에 많이 있다는 설명으로 보아 청소년의 덕성함양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효과를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화랑도의 수련활동

수련활동의 성공여부는 수련후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생활태도 및 행동양식의 변화에 따라 그 효과를 알아 볼 수 있는 것이다. 효과적인 수련활동을 위해서는 내용이 풍부한 수련거리와 수련터전 그리고 소집단활동을 이끌어갈 유능한 지도자 양성은 물론 국가차원의 조직활성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조직

수련활동은 진흥왕 37년 서기 575년에 처음으로 원화를 두어 실시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차원의 조직운영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규모의 집단활동은 오래전부터 실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랑집단의 조직은 자연발생적인 민간청소년 운동으로 시작하여 어느정도 조직을 갖춘 진흥왕 초기까지는 그 고을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화랑을 삼고 그 밑에 낭도 혹은 문도라하는 단원들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 아래서 화랑도 조직으로 발전됨에 따라 최고 책임자인 총단장은 국선화랑이라 하고 그밑에 3-4인 또는 7-8인 내외의 화랑을 두었다. 화랑을 중심으로는 수백, 수천의 낭도 즉 청소년단원이 계속되어 있었다. 단장인 화랑은 귀족사회에서 선출됨이 원칙이었으나 그를 중심으로한 낭도는 계급을 불문했다. 그러므로 화랑도란 신라의 귀족사회와 평민사회의 교량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평민 청소년중 전쟁등 유사시에는 능력에 따라 높이 쓰일 수 있는 진급의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고아인 미시랑을 총단장인 국선에까지 오르게 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물중심운영계획도 있었을 것이다. 이선근(1982)은 화랑도의 조직을 3단계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총단장 각급단장 단부의 단원
국선화랑 → 화랑(선랑) → 문호의 낭도

화랑도 조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는 삼국유사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에 “제 5거열랑, 제 6실거랑, 제 7보동랑등 세 화랑도의 무리가 금강산에 놀러가려고 하는데 혜성이 십대성을 범하였다. 낭도들은 이를 으아스럽게 생각하고 그 여행을 중지하려 하였다. 이때에 신라 진평왕때의 고승인 용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자 별의 꾀변은 즉시 사라지고 일본 군사가 제 나라로 돌아가니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임금이 기뻐하여 낭도들을 보내어 금강산에서 놀게하였다.”

이상에서 화랑의 조직변천을 생각해 본다면 시초에는 두사람의 여성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남자들로 6-7명이 각급단장으로 활동하였고, 총단장인 국선화랑의 추대도 때에 따라 여러사람이 맡게되는 복합조직으로 유사시나 사회의 여건 변화에 알맞게 운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현재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청소년단체 수가 31개이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지도자 양성

훌륭한 청소년지도자 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청소년전전육성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능력있고, 성품이 좋으며, 인격적인 지도자가 스스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한사람 한사람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점을 함께 의논하며 정으로 교육할 때에 이에 감복하지 않을 청소년이 누가 있겠는가?

화랑의 지도자 양성에 관하여는 삼국사기 진흥왕 37년 봄에 비로소 원화를 받들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화는 화랑의 전신으로서 어여쁜 여성을 가리어 단장, 곧 지도자로 삼았는데 후에 종종 여성간에 질투로 인한 폐단이 생겨 여성을 폐하고 대신 귀족출신 중 외모가 당당하고 행동이 바르고 뜻이 높은 청소년을 뽑아 단장, 즉 지도자로 삼았으니 이를 화랑이라 이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임금과 신하가 인재를 알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기어 청소년들을 끼리끼리 모으고 집단활동을 하게하여 그 행실을 기준으로 가리어 내었다. 드디어 미녀 두사람을 선택하였으니 한사람은 남모요 또 다른 한사람은 준정으로 낭도들을 삼백여인이나 모으더니 두 여자가 서로 어여쁨을 다투며 시기하여, 준정이 남모를 자기집으로 유인하여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후, 이를 끌어다 강물에 던지어 죽여버렸다. 준정도 이로 인하여 사형에 처하고 낭도들은 화복을 잃어 해산하였다. 그 후 나라에서는 다시 외양이 아름다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하여 이름을 화랑이라 하여 받들게 하니 낭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혹은 서로 도의를 닦고, 혹은 서로 가락으로 즐기 놀며 명산과 대천에 돌아다니어 멀리 가보지 아니한 곳이 없으며, 이로인하여 그들중에 나쁘고 나

쁘지 아니한 것을 알게되어 그중의 착한 자를 가리어 조정에 추천하게 되었다.” 비슷한 내용이 삼국유사의 미륵신화·미호랑·진자사에 실려있는데 다음과 같다.

“진홍왕은 천성이 풍미가 있어서 크게 신선을 숭상하여 민가의 처녀들 중에 아름다운 자를 뽑아서 원화로 삼았으니, 이것은 무리를 모아서 사람을 뽑고 그들에게 효제와 충신을 가르치려 함이었다. 이것은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요이기도 했다. 이에 남모랑과 교정랑의 두원화를 뽑았고, 모여든 사람이 삼사백이었다. 교정이 남모를 절투하여 술자리를 마련하여 남모에게 취하도록 먹인 후에 남몰래 북천으로 데리고 가서 큰 돌을 들고 그속에 묻어 죽였다. 그 무리들은 남모가 간 곳을 알지 못해서 슬피울다가 헤어졌다. 그러나 그 음모를 아는 자가 있어서, 노래를 지어 거리의 어린이들을 피어서 부르게 하니, 남모의 무리들은 듣고 그 시체를 북천 속에서 찾아내고 교정랑을 죽여 버렸다. 이에 대왕은 영을 내려 원화의 제도를 폐지했다. 그런지 여러해가 되었다. 왕은 나라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풍월도 즉 화랑을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영을 내려 양가의 남자중에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화랑이라 고치고, 비로소 설원랑을 받들어 국선을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다.”

이러한 지도자 선발방식에 의하면 평민출신 단원이된 낭도중에는 단부인 문호의 책임까지는 주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래 집단중에서 덕망이 있는 자를 뽑아 지도자로 삼았다는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지도자 선택과정으로 보아서 풍부한 지식과 투철한 국가관 원숙한 인생관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를 정말 뽑을 수 있었겠는

가 하는 데는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귀산과 취항, 두 화랑이 원광법사에게 가서 세속오계를 받아왔고, 화랑중에는 나이도 있고 학문에 능한 승려들이 활동했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종교적 가르침은 물론 철학적 사고나 사상적 무장을 위한 교육지도자로서의 역할은 훌륭한 승려들이 담당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3. 수련거리

청소년들을 위한 알맞은 수련거리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자료와 함께 장시간의 노력과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집단활동을 위한 내용의 다양성, 창조성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흥미성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들이다. 특히 연령별로 구성된 청소년 단체활동 수련거리 개발은 복잡성에 있어서도 가히 쉽게 그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다행히 화랑도들은 명산대천을 수련터전으로 삼아 전국을 두루 섭렵하고 다녔기 때문에 청소년기본계획의 바들산(바다, 들, 산)활동과같은 자연체험 활동을 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여행중심의 현장교육 성격을 갖게되어 현장참여 생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성중심 측면을 강조하여 수련거리를 분야별로 개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화랑도를 위한 교육과정에서는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지육보다는 체육과 덕육에 더 중점을 두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생활 측면에 그리고 윤리교육과 군사훈련을 중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 미륵선화·미호랑·진자사에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것을 고쳐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웃사람을 공격하고 아랫사람에게 순하게 하니 5상(五常), 6예(六藝), 3사(三師), 6정(六正)이 왕의 시대에 널리 행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5상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나 또는 오륜중 부의(父義), 모자(母慈), 형우(兄友), 제공(弟恭), 자효(子孝)를 6예는 중국의 옛날 교육과목인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를 그리고 3사는 제왕을 보좌하는 최고 관직인 태사(太師), 태전(太傅), 태보(太保)를 6정은 성신(聖臣), 양신(良臣), 충신(忠臣), 지신(智臣), 정신(貞臣), 직신(直臣)을 말한다(이병도, 199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쟁등 국가에 어려움이 있는 유사시에는 용감한 무사의 정신이 강조되고, 평상시에는 풍부한 인간성을 토대로 한 신의와 관용등 슬기가 강조되는 등 문무를 겸비한 윤리적 성품을 갖춘 화랑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하여 이러한 청소년육성을 목표로 한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유교의 덕목인 충효신용인(忠孝信勇仁)을 강조한 세속오계는 모든 교과과정의 중심사상이었을 것이다.

교과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서강독

식견을 넓히고 심신수양을 위한 목적으로 경서를 사용하였는데, 아마 고구려의 태학과 경당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유교의 경전이 오경삼사를 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오경은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기를 말하며 삼사는 사기, 한서, 후한서를 이른다. 그의

에도 삼국지나 진춘추 그리고 분선등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도덕과목

자신의 유익함과 편안함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가 소극적으로 형성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소아를 버리고 대아적인 견지에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 함양, 도와주고 협동할 줄 아는 봉사정신 고취, 상부상조를 통한 건전하고 창조적인 사회건설을 할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수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진평왕때의 고승인 원광법사는 귀산과 취항 두 화랑이 찾아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금언을 청하였던 바 자신이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사상에서 유래한 충효신용인(忠孝信勇仁)을 높이 들어 세속적인 5계조의 계명을 가르쳐 시대정신에 입각한 현실적 사회윤리 기준으로 세워 화랑의 덕목으로 백하여 주었으니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이 그것이다. 또한 응림이 현안대왕께 대답한 세가지 미덕(三美德), 즉 겸손, 검소, 관용의 실천이 여기에 더하여 화랑은 물론 귀족출신 청소년이나 평민출신 청소년들까지도 높이는 귀중한 사회윤리의 중심사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나 종교인들중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는 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청소년들도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이요, 현실의 사회적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미래의 국가번영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체육 및 군사훈련

화랑들이 활동하던 신라사회의 상황으로 보아 오늘날과 같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나 레크레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개념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나 구분에 관심을 갖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을 즐기며 무예와 학문을 닦았고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을 중히 여겼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대적 의미의 여가선용에 대한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현성(1981)은 화랑의 유희적 활동으로 가무를 비롯 바둑, 연날리기, 달리기, 궁차기, 씨름, 태권도, 물놀이 등을 들고 있으며 무사의 체육활동으로는 말달리며 활쏘기, 포창, 칼쓰기 등을 주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말달리며 활쏘기의 경우는 말타는 능력과 활을 쏘는 능력이 되겠지만 이의 완성을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과, 끈질긴 투지, 민첩한 동작 등 남다른 재능과 훈련을 요구했을 것이다. 삼국사기 원성왕조에 “궁전술로써 인재를 뽑았다”는 기록이 있음을 볼 때 말달리며 활쏘기에 능한 화랑은 그 시대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었음은 물론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수련방법

화랑도의 수련방법은 집단생활을 통한 단체 훈련으로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통해서 학문적 이론을 실천함은 물론 인간관계 훈련과 생활훈련을 중요시 하였으며 도덕성 함양, 정서함양, 여행을 통한 명승지 견학 및 현장교육, 바들산 수련장으로 명산 대천과 바다를 찾았다. 이러한 수련방법을 삼

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해 주고 있다.

“혹은 서로 도의를 닦고 혹은 서로 노래와 음악으로 즐거이 놀며 명산과 대천에 돌아다니어 멀리 가보지 아니한 곳이 없다(或相勵以道義, 或相悅以歌舞, 游娛山川, 無遠不至).”

이상에서 보듯이 신라의 화랑도 수련활동은 오늘날의 학교교육과 청소년단체활동은 물론이고 가정교육의 역할도 담당하는 종합적인 학습 훈련으로 전인교육적이었다고 특징지을 수 있겠다. 특히 현재의 주입식이나 암기식을 통한 점수획득 작전이나 전략을 세워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출세할 수 있다는 경쟁의식보다 자신의 내적 발전을 꾀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성찰을 통한 향상을 시도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활동이었다.

이러한 자신의 완성을 목표로 한 교육은 청소년 한사람 한사람이 고배한 인격의 소유자가 됨은 물론 이상과 꿈이 차원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기 마련이다. 거기에는 향가와 같은 가락을 즐거움으로 삶 전체가 정서와 사기는 물론 멋과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청소년기본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는 신체적 건강의 향상, 유지, 보호를 통한 건강한 삶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체력단련,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양과 정서를 기르는 아름다운 삶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정서함양,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진작하는 용기있는 삶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자연체험, 인격도야로 품성개발을 통하여 인간관계 개선과 인간존중 정신을 함양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예절수양,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이해와 협동 및 봉사정신을 기르는 베풀며 사는 삶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사회봉사,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익히며 우리의 얼과 뿌리에 긍지를

찾아 국제적 안목을 기르는 슬기롭게 사는 삶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전통문화, 그리고 각 개인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가치관을 습득케 하는 조화로운 삶을 위한 종합체험활동 등은 화랑도의 수련활동 방법과 연계하여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제도적인 교육의 현장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지고 있는 인간의 도덕화, 윤리화, 문화화, 영역이 어찌면 가장 강조해야 될 주요분야 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회의 주체로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올바른 인간교육의 부재는 그 사회와 그 국가의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를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수련의 방법은 일차적으로 바다, 산천과 강을 배경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하늘의 해와 달, 별들도 청소년들의 꿈의 일부로 생각해야 되며, 국제교류를 통한 인부공영의 실질적 의미 부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구문제, 인종문제, 빈곤문제, 사상문제, 환경문제 등의 해결방법도 인간성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상태에서는 청소년전유성을 위한 훌륭한 수련거리가 많이 개발되고 최선의 수련방법을 이용한다 손치더라도 무의미한 걸치레에 불과하게 되고 말 것이다.

V. 결 론

그 시대 교육 본래의 사명이 인재의 양성과 민중교화에 있었다고 본다면 신라 교유의 화랑도 교육은 동서양의 어떠한 철학사상이나 교육사상에 비추어 보아도 못함이 없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니 이는 화랑도의 교육이 논리나

사상적 이론보다 실천적인 삶의 질에 두었으며, 단체활동을 통한 수련을 중요시하여 인격함양 교육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덕목교육 중심이었다. 덕목교육의 중심사상은 충·효·신·용·인파 겸손, 검소, 관용으로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윤리관에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 대한 애국애족의 정신, 가정의 평화, 단체생활에 필요한 신의와 협동정신, 천우간의 상조정신, 사회적 불행에 대한 동정심 등이 포함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평등사상 교육이었다.

둘째는 용감한 병사와 실천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변의 강대국의 침입이 빈번하여 자국의 안전보장과 삼국통일의 국가적 열원을 완수하기 위하여 강인한 정신력 배양은 물론 군사훈련을 중요시 하였다.

셋째, 정서교육이 강조되었다. 정서교육은 틈과 마음을 연다하는데 필수적이다. 명산과 대천을 찾아다님은 자연과 하나됨을 교육하는 것이요, 시가와 음악을 즐기는 것은 감정을 순화하고 세속된 물욕과 자신의 작은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인격도야를 위한 필수 교과과정이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화랑도 교육은 신라사회의 청소년 교육이었을 뿐아니라 신라의 국민적 정신의 근간을 이루어 주었으며, 삼국통일을 위한 정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인간성 상실에 있으며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기능화·기계화 되어 감으로 윤리·도덕의식을 둔화시켜 주고 있다. 특히 가치관의 혼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개인주의를 배타적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물

질우선주의로 발전시켜 역작용을 낳게 되었고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정서적 갈등과 윤리도덕적 측면의 황폐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차체에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인 화랑도 교육이념을 나의 것으로 승화시키고 자연에서 행했던 단체 활동을 통하여 원만한 인간관계의 체험을 익혀 줌으로 소아를 버리고 대아의 정신에 살 수 있도록 수련을 통한 정신력 배양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화랑의 정신은 오늘날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척박한 국제관계에서 민족통일을 이룩하고 세계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민족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지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화랑도가 신라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기성세대들에게는 도전을 위한 자극제가 되고 활력소가 되어 주었듯이 오늘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꿈으로서 의로운 길을 찾아가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개국이념이며 또한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실천운동과 세속오계·삼미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실천을 통한 도덕의 생활화 윤리의 사회화를 성취해야 되겠다.

이를 위한 현실적 노력을 위하여 2000년대의 통일된 선진한국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제안을 청소년 관련기관과 지도자에게 드리고 싶다.

첫째는 공동생활을 통한 단체활동과 봉사활동의 실천운동, 둘째는 바다와 들과 산은 물론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생활을 통한 정서함양 교육중시, 셋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갖추어야될 기본지식 교육만 수료하면 전통사상교육과 전문지식교육 연마는 병행하여 실시, 넷째는 감정적 사고보다 이성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덕목교육에 중점을 둔 전인교육 환경조성 그리고 다섯째는 신의와 협동이 강조되고 조그만 유익에 치증하는 소아적 자아를 버리고 희생봉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아적 삶의 실천운동 전개가 그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기태, 교육사연구입문, 교음사, 1983.
 김부식, 삼국사기(상·하)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1991.
 나현성, 한국체육사, 교학연구사, 1981.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91.
 이병도, 국사대관, 보문각, 1957.
 이선근, 화랑도, 형설출판사, 1982.
 일 연, 삼국유사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1991.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판 41, 삼성출판사, 1977.
 한국의 불교사상, 삼성판 11, 삼성출판사, 1977.
 한국일보, 북한(1991.11.5).
 한국일보, 통독후 동독청소년의 정서문제 (1991.10.28).
 한국철학회, 한국철학사(상), 동명사, 1990.